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15-21)

이 시간, 우리들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해가 주어졌고, 새날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어제의 삶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routine적인 삶도, 우리는, 오늘도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마음은 바뀌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자세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충분히 변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꿈은 클수록 좋다. 아주 큰 꿈을 가져라” –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100%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살아도,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면, 그 근처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꿈이 크면 클수록 큰 일들을 해 낼수 있다. –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목사님께서 젊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밀씀으로, 듣고 지나갔는데, 철이 들면서,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닳을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꿈을 갖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우리들에게 꿈이 없디면 - 앞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 없다면,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일 것입니다. 그냥 시들어 죽고마는 화초같은 인생이 지요. 또한 꿈은 젊은 사람들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들은 앞날에 대한 벅찬 소망과 꿈을 가질수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꿈울 이룬다”고 하는 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꿈이 꿈을 이루는 능력 입니다. 미래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고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순간 순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 꿈을 이룹니다. 꿈은 반듯이 있어야만 합니다. 꿈이 곧 능력이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는 것을 꿈꾸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도 꿈꾸게 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기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꿈꾸는 자들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한 해의 꿈을 가져보는 시간 입니다. 금년, 한해, 주어진 날들,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맞이 할것인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살아가야 할것인가? 생객해 볼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금년 한해, 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내가 하는 일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 이루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꿈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에배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P. 2**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쓰여진 말씀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0년 전후해서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지요. 포로들로써, 그들의 삶은 매우 피곤하고 고달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매일 매일, 죽지않고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였고,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을 거에요.

우리들은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에서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않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마, 이민자들로써, 우리들은, 함께 모여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 할수 있지요. 그런데, 자유스로운 이민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노예들로써, 고향인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정말, 말로는 표현 할수 없는 그런 심정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옛것은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루는 일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촛점을 마추어 삶을 이어나가라” –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와 사막”의 삶은 누가 설명을 해 주지 않아도, 잘 아는 그런 삶이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 자체가, 앞이 보이지 않고 험난했던 “광야와 사막의 삶”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절망적이고, 헤어나올수 없는 그런 삶이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삶에 길을 내어 주시고, 생명수의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skeptical하게 받아 드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에요.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운동을 시작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는 물론이고, 에레미아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는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 꿈의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70년후에,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 집니다.

성서 학자 William Barkley 박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한번 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 Ongoing work of God”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새 일 –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다. 저는 이러한 Barkley박사의 해석을 좋아 합니다.

**P. 3**

그 옛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이루신 새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새것을 창조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들은 “옛 것에 - 지난간 일들에 –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고, 어떤 가슴 아픈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들에 얽매여 뒤만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맏기는 – 그런 삶을 –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 입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신 역사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저수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쁜 물질로 오염된 저수지의 물은 약간의 맑은 물을 넣는다고, 깨끗해 지지 않지요. 그 물소게 있는 나쁜 물질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깨끗해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아야,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수 있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던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은 탄광이 많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많은 탄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광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Methane gas의 폭발 사고 였습니다. 밤동안, 탄광 문이 닫혀 있으면, 탄광안에 Methane gas가 차게 되는데, 그 gas를 없애지 않으면, 탄광 안에 폭발 사고가 나게 되지요. 광부들이 안심하고 하루를 안전하게 일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Methane gas를 아침마다, 일찍 광부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태워서 없에야 했습니다.

그 gas를 없애는 사람들을 Firemen - 불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 붇이는 사람 – 이라고 불렀는데, Firemen들은, 아침마다 물에 적신 두꺼운 옷을 입고, 긴 막대기에 불을 키고는, 탄광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막대기의 불로 Methane gas를 태우죠. 그런데, gas가 어디까지 차 있는지를 단순히 냄새로 판단을 하고 탄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Firemen의 일은 목숨을 건 일이였습니다. 잘못 판단 하거나 실수를 하면, gas가 폭발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였어요. Firemen들의 일은, 광부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는 그런 일이였습니다.

Barkley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GAS에 덮힌 탄광처럼 되로 덮힌 인간들이, 다시 살수 있도록 – 그 죄악을 불태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태워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P. 4**

새로운 역사인 것 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소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삶을, 항상,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청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말씀 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 우리의 삶이 나를 억누른다 할찌라도 – 우리는 항상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살아 갈수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 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항상 역사 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수 있는가? -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문제 입니다.

내 영혼이 침체가 되괴, 내 마음이 절망속에 있고, 내 육신이 피곤해져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삶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을 우리가 믿을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던 사람들을 날게 하시고, 않은뱅이를 뛰게 하신 하나님 -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절망속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신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맞아 드릴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 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더 쉽게 번역이 된것 같습니다. “주목하다”를 “Fix our eyes”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와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태리의 나폴리에, 음악을 아주 좋아했던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자라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음악 시간에, 그 소년이 선생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라서 성악가가 되는 것이 정의 꿈 입니다.”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와 같이 너무 거칠어서 성악가는 될수가 없다. 다른 꿈을 찾아라.” 그런데, 그 소년의 어머니만은 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가난한 과부였고, 얼마나 가난한지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그런 처지였지만,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음악 공부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은 할수 있다”였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노력은 계속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를 휩쓸었던 유명한 테너 Enrico Caruso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금년 한해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P. 5**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는 우리들 -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역사를 창조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새롭게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해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축원 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주님, 새날과 새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로 부터 온 것임도 고백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새해,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금년 한해도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어느때 보다도 풍성한 삶으로 축보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축복과 함께 특별히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해가 되게 하시고,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 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이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있게 해 주시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이다. 아멘.